

정부, 금주 설 물가대책 내놓는다

설 앞두고 당근 80%·배추 60% 경충... 파종시기 폭염·가뭄 등 이상기후로 생육 부진 탓

설 연휴를 3주 앞두고 주요 채소류 가격이 평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는 설 성수기를 대비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마련한 계획이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무세척 당근 상(上)품 1kg은 6383원으로 1년 전보다 82.1% 상승했다. 평년 대비로도 71.6% 올랐다.

겨울 당근 가격 상승은 파종 시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 당시 고온으로 인해 생육이 좋지 않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겨울 배추도 정식 시기인 8~9월 불벌더위가 지속되면서 작황이 부진했다. 무 역시 주산지인 제주 지역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생산량이 줄었다.

배추 상(上)품 한 포기 가격은 5027원으로 전년보다 58.9%, 평년보다 41.7% 높다. 겨울 무도 상품 1개에 3206원으로 전년보다 77.4% 평년보다 69.5% 올랐다.

양배추와 브로콜리, 시금치도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배추는 한 포기 5361원으로 전년보다 32.3%, 평년보다 32.5% 증가했다. 브로콜리도 한 개에 2570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7.0% 상승했다.

시금치는 100g당 912원으로 전년보다는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 13.7%, 평년 대비 33.5% 증가했다.

설 주요 성수품인 과일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나 배 가격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 배 상품 10개는 4만1955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4.6%, 23.5% 상승했다. 전월보다도 11.8% 올라 월간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후지 사과 상품 10개는 2만6257원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전년보다 10.2% 하락했다. 평년 대비로는 3.1% 소폭 증가했다.

감귤은 10개에 4804원으로 평년보다

63.3% 올랐고, 전년 보다는 12.3%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도 16.2% 상승해 증가세를 나타냈다.

딸기 100g은 2542원,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25.4%, 10.4%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월 대비로는 12.2%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설 성수기를 대비한 물가 관리 대책을 이번 주 확정해 내놓을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을 최대한 공급하고, 관련 할인 지원에도 재정을 역대 최대로 투입할 방침이다.

/뉴시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2025년 1월 6일, 희망찬 을사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2025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라한호텔 전주에서 개최하였다.

협력·소통·쇄신, 새로운 출발 다짐

건협 전북, '2025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2025년 1월 6일, 희망찬 을사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2025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라한호텔 전주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유정기 전북 부교육감, 우병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등 건설 관련 기관 및 도내 유관단체장을 비롯한 역대 건설인 원로와 회원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협회발전, 청렴문화 정착과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한 21명의 건설인 유공자에게 전북도지사 표창과 전북교육감 표창 대한 건설협회장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다.

소재철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4년 한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는 폭풍을 견디며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는 한 해였다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경기침체라는 삼각포도 속에 자칫함과 인건비가 계속 올라 우리 건설업계의 경영 애로가 무척 심했다"고 소회했다.

/김옥기기자

반려견 사료 속 탄수화물 원료에 따라 체내 흡수율 달라

체중 조절 '녹두'·활동량 많으면 '쌀·옥수수·현미'·비뇨기 건강 유지는 '옥수수·보리' 알맞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반려견 사료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원료가 소화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국제 학술지에 결과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반려견 사료에는 옥수수, 쌀, 현미, 보리, 귀리, 감자, 녹두, 고구마, 비트펄프, 메밀 등의 순으로 많이 들어있다.

연구진은 사판 사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탄수화물 함량을 조정한 원료별 시험 사료를 만들어 2주간 반려견에게 급여한 후 소화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탄수화물 원료에 따라 체내 흡수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탄수화물과 에너지 소화율은 쌀과

옥수수, 현미가 대체로 높았다. 지방 소화율은 보리가 가장 높고 옥수수가 가장 낮았다. 탄수화물 원료 중 녹두는 단백질·탄수화물·에너지 소화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반려견의 비뇨기, 털,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 메티오닌의 소화율은 옥수수와 보리에서 높았다.

결론적으로 움직임이 적거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반려견은 소화율이 낮은 녹두가 들어있는 사료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성장기나 활동량이 많은 반려견에게는 쌀, 옥수수, 현미 등 체내 에너지원 이용률이 높은 탄수화물 원료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하면 효

율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가 반려견 사료 제조 가공업체에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를 생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반려견은 단백질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생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백질과 지방은 필수영양소로 반려견이 섭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량이 정해져 있다. 반면, 탄수화물의 필수 요구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탄수화물에는 식이섬유, 항산화제, 필수 지방산(오메가3, 오메가6), 비타민 등 반려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



녹두 함유 반려견 사료

익한 물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황성수 팀장은 "이번 연구 결과와 더불어 비동물 실험을 통한 체내 소화율 예측 방법을 확립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서 농협생명 전북 1호 가입행사

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최근 전주김제완주축협 본점에서 2025년 농협생명 전북 1호 가입 감사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날 농협생명 지광수 총국장은 새해 전북농협에서 농협생명 1호 계약을 추진한 전주김제완주축협 이덕현 지점장과 가입고객을 만나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본점 직원들과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 1호 가입 상품은 '진심을 담은 NH 종신보험'으로 제1납기와 제2납기를 구분하여 일할 때 더 내고 은퇴 후 덜 내는 방식의 스마트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며, 사망보험금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3%씩 체증 되어 최대 160%까지 지급되는 상품이다. 또한 계약자는 물론 계약자 가족에게도 농협생조 장례서비스 상품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한다.

지광수 농협생명 전북총국장은 "농협생명 진심을 담은 NH 종신보험은 생애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스마트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고 계약자 적립액은 향후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는 만큼 고객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수협, 1288억 위판액 달성... 설립 이래 최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수협이 설립 이래 최고 위판액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6일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2023년 도내 수협 최초로 위판액 1000억원 돌파에 이어 2024년 역대 최고액인 1288억원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연근해 어자원 감소와 어선간축 등으로 수산량이 침체되는 악조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간 군산시수협은 타지역 및 관내 어업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타 지역 선박 유치와 관내 어업인의 위판

독려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직거래 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등의 노력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신뢰받는 수산물 공급처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노력으로, 2024년도 물길 위판액은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440억원을 기록하는 한편 홍어, 갑오징어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김광철 조합장은 "위판액 최고액 달성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자치도 특화훈련사업의 힘찬 출발

경진원 산하 전북인자위, 재직자·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에서 운영중인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하 전북인자위)가 급변하는 산업구조변화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25년 지역 특화훈련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이하 산대특)'은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재직자·실업자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 인자위에서 배포한 전북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 기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44.9%로 전국(37.0%) 대비 7.5%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기준 구직인력이 구인인

력에 비해 많으나 구직인력 대비 취업건수 비중은 44.8%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조건 미스매치, 필요한 인력 수준 및 역량의 미스매치 등의 해소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 인자위는 고용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개발을 통해 구인구직 불균형 해소 위해 2025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올해 전북지역 특화훈련 목표인원은 800명이며, 2024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목표인원을 배정받아 고용노동부, 전주, 익산 군산 고용센터와 협업, 훈련과정을 발굴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전북 인자위는 이번 달 중으로 지원 대상 산업과 직종 및 육성산업·직종 선정하고, 2월 훈련기관 공모·선정, 3월 훈련개시를 목표로 일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화훈련 사업관련 문의는 063-711-2166로 하면 된다.

/김옥기기자

